

겸손과 온유로 섬깁니까?

주님 누구시니이까 (행 26:15).

:

“그러므로 주께서 강한 팔로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사 8:11. 주님께서 말씀 하실 때에는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분은 언제나 가장 잘 이해될 수 있도록 말씀하십니다. 당신에게 직접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당신이 가장 잘 아는 언어로 친밀하게 말씀하신 그분의 뜻을 놓칠 수 없을 것입니다. 특별히, 당신의 귀가 아니라 환경을 통해 말씀하실 때 더욱 그려합니다.

우리가 자신의 신념을 고집스럽게 확신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확신을 부수십니다. “이 일은 내가 해야 하는 일이야.” 그때 갑자기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의 무지가 얼마나 깊은지를 드러냅니다. 주님을 내 방식대로 섬기겠다고 할 때, 주님을 향한 우리의 무지가 드러날 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영이 아닌 다른 영으로 주를 섬기려고 합니다. 주님을 돋겠다고 나서지만 주님께 상처를 드립니다. 심지어 주님의 요청을 이루어어야 한다고 하면서 악한 영을 가지고 밀고 나갑니다. 또한 우리의 입술은 옳은 말을 하는데, 마음은 미움의 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주께서 그들을 꾸짖으며 말씀하시길 너희는 너희가 어떠한 마음으로 말하는지 알지 못하느냐.” 주님을 섬겨야 할 자가 지녀야 할 주님의 영이 어떠한지에 대해, 고린도전서 13장에 잘 서술되어 있습니다.

열성이 있지만 내 방식대로 주님을 섬기겠다는 고집 때문에 예수님을 팝박해온 것은 아닙니까? 내 의무를 마쳤다고 느끼지만 그 의무를 수행하면서 주님께 상처를 드린 적은 없습니까? 진정 주께서 맡기신 의무라면, 자신의 만족을 위해 수고할 것이 아니라 오직 겸손과 온유한 마음으로 섬겨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달갑지 않은 것은 뭐든지 지겨운 의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서 말씀하실 때는 “나는 주의 뜻을 행함으로 기쁩니다. 오 나의 하나님”시 40:8이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겸손과 온유로 섬깁니까?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행 26:15)

1. 신앙의 오류 - 주님을 내 방식대로 섬기겠다고. .

우리 신앙의 오류가운데 하나는 ‘자신의 신념’ 혹은 ‘내 방식’으로 주님을 섬기려는 마음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어제 말씀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제는 주님께서 바울에게 물으셨습니다. “왜 나를 펑박하느냐?” 그런데 오늘은 바울이 예수님께 묻고 있습니다. “주님은 누구십니까?” 이 두 가지 물음에서 우리가 얼마나 잘못된 신앙을 가고 있었는지 발견하게 됩니다. 어제 말씀에서도 언급했지만 때로는 우리의 ‘열심’이 주님을 펑박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바울은 주님이 누구신지 묻고, 그 주님이 누구신지 알게 됨으로 올바른 신앙의 궤도로 올라서게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묻는 물음에서 비로소 우리는 ‘무지와 교만’을 벗어 날 수 있다는 것이죠.

“주님을 내 방식대로 섬기겠다고 할 때, 주님을 향한 우리의 무지가 드러날 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영이 아닌 다른 영으로 주를 섬기려고 합니다. 주님을 돋겠다고 나서지만 주님께 상처를 드립니다.”

이러한 예는 누가복음 9장 54절에서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새번역) “주님,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라고 우리가 명령하면 어떻겠습니까?” 이 일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중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을 보고는 야고보와 요한이 화가 나서 주님께 묻는 장면입니다. 제자들의 말이 주님을 위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예수님의 마음을 모르니 주님을 펑박하는 말입니다.

2. 신앙의 올바른 방식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에서 늘 물어야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나에게 있는 열심이 혹시 내 방식대로 예수님을 섬기겠다는 고집은 아닌지,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다못해 우리 주님을 펑박하는 것은 아닌지

“진정 주께서 맡기신 의무라면, 자신의 만족을 위해 수고할 것이 아니라 오직 겸손과 온유한 마음으로 섬겨야 할 것입니다.”

오늘 챔버스가 묵상에서 ‘겸손과 온유’라는 말을 제목으로 삼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리고 겸손과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느냐고 묻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진정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무라면 결코 우리의 만족을 위해 수고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만족이 채워지지 않는 것으로 실망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겸손과 온유’로 섬긴다면 당연히 주의 뜻을 행함으로 기쁨이 찾아 올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우리의 만족을 위해 수고하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일은 희생과 자아의 제한을 필요로 하지만 동시에 더없이

즐겁고 한없는 자유를 누리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에는 희생과 제한이 따르는 것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예수님을 본받아 겸손하고 온유한 자세를 가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김병삼 목사의 한줄 노트

- ❶ 주님을 위한다고 하는 말인데, 주님의 마음을 모르니 누군가에게 무서운 복수의 칼이 되어 버렸습니다.
- ❷ ‘주님의 일을 하면서 기쁨이 있는가’는 올바른 신앙의 방식으로 일하고 있는지를 판별하는 척도가 됩니다.

묵상 질문 오늘 주님이 환경을 통해 당신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혹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에 무감각하지 않습니까?

묵상 레시피 | 마태복음23:1-12 + 사도행전 26:15

예수님께서 그들과 동일한 잘못을 범하지 말라고 보여주신 대상은 누구입니까? (2절)
그들의 잘못된 행위는 무엇이었습니까? (3-4절, 5절, 6-8절)
무리와 제자들이 늘 염두에 둘 것은 무엇입니까? (8-12절)
우리에게 랍비, 선생, 지도자는 누구십니까? (8-10절)

경문(5절) (헬)필라크테리온

신6:8절에 근거. 가죽 끈에 연결된 조그마한 상자, 그 안에 말씀이 적힌 작은 두루마리가 들어 있다. 유대인들은 기도할 때 이것을 머리와 윈팔에 묶는다. 경문을 넓게 한 것은 사람들 눈에 쉽게 띄도록 크기를 키운 것이다. 자신의 신심을 과시하려는 행위로 추정됨.

옷술 (헬)크拉斯페돈

민15:37-40에 근거. 망토 혹은 외투 가장자리에 텔실을 꼬아 매달도록
장식한 작은 부속물. (히)지지트라고도 부르며 파란 실, 하얀 실을 꼬아 만들었다.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 준행케 하며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르지 않도록 하는 기능.

잔치 윗자리(6절)

헬라어 원어에는 ‘첫째’와 ‘기대어 눕는 자리’가 결합된 단어로 되어있다.
잔칫상의 오른쪽 상단 끝자리로 가장 귀한 손님에게 돌아갔다. 세속적 영광을 의미한다.

회당 높은 자리 (헬)프로토카데드리아스

유대인 회당에서 율법을 넣어두는 곳 앞에 마련된 자리. 회당에 있는 사람들의 눈에 가장 잘 띄는 자리로 보통 서기관, 사회 지도자급 인사들이 주로 앉았다. ‘비뚤어진 종교적 영광’을 의미한다.

지도자(10절) (헬)카데게오마이

앞서가는 사람, 인도하는 사람. 권위 있는 교사를 지칭하는 데 주로 사용. 진리의 길로 인도하는 사람.

짧은 기도

오 하나님, 저희에게 은혜를 주시어 아버지의 뜻이 저희 안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저희를 고치시고 행하소서.

그것이 저희에게 아픔이 된다 해도 멈추지 마소서.

저희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저희를 보호하시어 저희의 생각과 의향과 뜻대로 행하지 않게 하소서.

저희의 뜻은 아버지의 뜻과 반대입니다.

아버지 뜻만이 선합니다.

설사 저희 눈에 선해 보이지 않아도 그것만이 선한 것입니다.

저희 뜻은 혹시 선해 보일지 몰라도 실은 악할 뿐입니다.

마르틴 루터_ 아버지의 뜻을 이루소서(1483-1546, 종교개혁가) 「사귐의 기도」 122